

# 女子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衣服行動에 관한 研究

—校服을 중심으로—

金 映 仁·姜 蕙 遠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and Cloth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Girls

Young In Kim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f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thre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self-concept, and selected behaviors.

Instrument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were 12 items selected from the Behavior Test by Laubach, The Perceptual Orientation Scale by Choi, 14 items to assess the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and 21 modified items to evaluate conformity, fashion, and modesty in clothing.

The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484 2nd grad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girls in Seoul.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chi^2$ -tests, and t-tests.

The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Perceptual Orientation and Behavioral Orientation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 2) Perceptual Orientation and Behavioral Orientation were negatively related to clothing conformity.
- 3) Attitudes toward school uniform and clothing behavior were partially different by the grade level and the type of school.
- 4) Fash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conformity, but negatively related to modesty in clothing.

### I. 서 론

衣服은 인간이 형성한 文化遺産의 하나인 동시에 개 개인이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여가는 自己表現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의복에 대한 관심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아, 특히 靑年期는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校服을 着用하고 있으며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교복착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일률적인

교복착용은 個性있는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어떠한 心理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특히 校服의 自律化가 1980년 2월에 문교부에서 거론된 이래 많은 관심이 중·고등학생들의 의복에 집중되어 교복의 제한 범위를 줄이거나 교복모양을 바꾸며 소풍시에 私服을 着用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sup>1)</sup>. 그러므로 중·고등학생들의 知的 및 情意的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교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본 研究의 目的은 ① 현재 우리나라 여자 中·高等學校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 및 一般的인 衣服行動을 조사분석하고 ②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態度 및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규명하여 ③ 청년기의 의복행동 이해에 도움을 주고 의생활 교과과정 및 교복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 II. 문헌적 배경

본 연구와 관련된 文獻을 몇 측면에서 要約제시하였다.

**青年期:** 청년기에는 의복과 외모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매우 높은 위치로 옮겨간다.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 側面的 發達 및 變化를 이해함으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Ryan<sup>2)</sup> 및 Hurlock<sup>3)</sup>의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청년기에 일어나는 급속한 성장은 몸의 부위에 따른 발달 및 변화의 속도에 個人差가 있으므로 치수가 잘 맞는 의복을 입는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하다. 한편 정신적인 측면에서 청년기는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變化를 他人에게 알리려 하지 않으며 異性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또한 抽象的인 思考를 할 수 있게 되나 아직도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우므로 外形으로 나타나고 명백히 감지할 수 있는 의복 및 외모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년기는 부모 및 성인의 권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 아직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처하게 되며, 타인의 이들에 대한 役割期待도 一貫性이 없어 이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을 조성한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欲求가 강하게 되며, 특히 동료집단에서 승인되고 인정받기 위하여 동료집단에 동조하게 되며 그 수단인 하나로써 의복이

사용된다.

**同調性:** Horn<sup>4)</sup>은 의복에 있어서의 동조란 特定한 集團의 規範에 일치하도록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조성이 높은 사람은 社會的으로 不安定한 사람이며, 또한 청년전기에는 역할의 모호성에서 오는 사회적 실수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사회적 역할을 좀더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동료집단의 의복기준에 극도로 동조한다고 하였다. Hurlock<sup>5)</sup>과 Latzke 및 Hostetter<sup>6)</sup>에 의하면 청년기는 동료집단의 구성원들과 비슷하게 보일 때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승인을 얻고 자신감을 강화시키게 되므로 이 시기의 가장 주된 의복의 요구는 의복이 동료집단의 승인과 맞는 것이다. Roach<sup>7)</sup>은 의복의 동조에 대한 學校當局의 觀點은 학생간의 긴장완화 및 이해증대에 도움을 주므로서 효과적인 성인 역할의 수행을 위한 기술습득 및 지식축적에 학생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流行:** Anspach<sup>8)</sup>은 유행은 不安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주며 선망이나 敵對感이 섞여있는 개인이나 집단상호간을 다르게 나타내고, 또한 그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결합물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Hurlock<sup>9)</sup>은 청년기에는 집단과 동일함을 나타내려고 유행하는 의복에 동조하는 반면, 다른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의복이 나타내주기를 바라며, 극단적인 모양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보수적인 의복을 좋아하는 어른에 대하여 그들의 자율을 상징화한다고 하였다.

**眞淑性:** Hurlock<sup>9)</sup>은 人間만이 지니는 특성의 하나인 정숙성의 기준은 국가나 개인마다 다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시대 또는 국가의 이념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습관의 문제이며, 또한 사춘기 친구들과 다르거나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이 지니고 싶은 의도와는 다른 신체적 변화를 겪는 이 시기는 지나치게 정숙하여져서 그의 신체를 계속해서 타인에게 감추려 한다고 하였다. 임춘봉<sup>10)</sup>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숙성이 높은 여학생이 동조성도 높게 나타났다.

**衣服規制:** Langner<sup>11)</sup>은 制服의 着用動機를 ① 착용자의 우수성 과시 ② 사회계층의 구분 ③ 단체정신의 형성에 있으며, 특수한 집단의 제복을 입음으로써 개인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집단규칙의 범위내에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Horn<sup>4)</sup>은 제복의 長點은 남을 배까지 입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 대한 착용자의 노력배제등이며, 반면 개성표현에 대한 제한성을 단점으로 보았다. Laubach<sup>12)</sup>의 중·고등학교의 의복규칙 및 통제된 의복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정장차림 때에는 편안하고 매력적인 느낌이 있고, 학교갈 때는 어른과 선생님이 승인한 옷을 착용할 때 마음이 편안했으며 ② 학교의 의복규범설정時 중학생은 학교 당국이, 고등학생은 학생자치단체가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③ 교복은 50%가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고 부정적이었으나 20%는 교복이 다른 사람과 같게, 기분좋고 안정되게 하여 준다고 하였고 ④ 교복착용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교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Ⅲ. 가 설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 및 일반적 의복행동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零假說을 설정하였다.

1. 學生들의 行動方向 및 知覺向性은 校服着用態度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2. 學生들의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은 일반적인 衣服行動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3. 學校集團(중학교—고등학교)의 차이는 學生들의 의복행동에 아무런 차이도 주지 않을 것이다.
4. 學生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인 의복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 Ⅳ. 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1) 知覺向性檢査: 지각향성이란 인간이 자신, 타인 및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내용의 경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타인 및 자아의 두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최정훈<sup>13)</sup>의 학생용 지각향성검사를 사용하였다. 전체 4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향성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2) 行動檢査: Laubach<sup>12)</sup>가 작성한 행동에 관한 13 문항중 본 연구에 적절한 12문항을 선정하여 Likert-type 로 수정,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근면성, 동기유발, 솔선, 협동심, 지도력, 책임감, 타인과의 관계, 안정성, 성실성, 개인적기준, 몸치장 및 외모에 관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방향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3) 校服에 관한 檢査: 교복착용태도 I, II: 의출시의 교복착용도 및 착용이유, 교복의 "자율화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 작성되었다. 교복착용태도 I 은 현재의 교복착용실시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교복착용태도 II는 교복에 관한 10가지 측면의 태도를 알기위한 것으로서 Likert-type 의 10문항 전체로 측정하였으며 이것은 점수가 높을수록 교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4) 一般的 衣服行動檢査: 자신의 의복에 대한 관심, 평가, 선택 및 사용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의복의 정숙성, 동조성 및 유행의 세 측면을 포함하였다. 이 검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sup>14, 15)</sup>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인정된 문항들을 선택하여 중·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전체 21문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貞淑性: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한 옷이나 몸에 꼭 끼는 옷을 보거나 입었을 때 정숙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同調性: 집단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소속된 집단의 규범에 준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조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流行: 의복의 유행성에 관심을 가지며 의복선택시 유행을 고려하고 유행과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5) 其他: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의복행동, 지각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 및 학교의 분위기(민주적-보수적)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 2. 標集對象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2학년 여자 中·高等學生 484 명이며, 자료수집은 說問紙에 의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된 설문지는 학교분위기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1980년 7월초에 서울 중심가의 사립중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와 서울근교의 공립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각 1개교의 2학년 2학급에 배부되었으며 수업시간중 약 30분간 실시되었다. 회수된 546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484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 3. 연구의 한계점

표집대상이 서울시내 일부학교의 2학년 2학급에 한하였다는 점과 본 연구에 사용된 「교복에 대한 설문지」의 타당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Ⅴ. ⅴ. 결과 및 논의

#### 1. 교복에 대한 태도와 行動方向 및 知覺向性的의 관계

校服用態度檢査 I에서 전체학생의 반수는 현재 교복착用に 찬성하였고, 1/3은 반대하였다. 표 1과 같이 교복착용태도검사 II에서 전체의 60%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4측면은 교복착용으로 인한 행동의 조심성, 생활의 차이가 나지않음, 학생의 자부심, 경제성 등이었다. 한편, 40%이상이 否定的인 태도를 보인측면은 교복착용으로 인한 과도한 학생신분의 노출, 미적감각 및 개성의 결여, 비활동성 등이었다. 교복착용태도검사 II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나 실제로는 15~50점으로 낮은 점수부터 높은점수까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30~35점 사이가 전체의 40%였다.

學生自身の 肯定-否定的의 行動方向을 측정한 행동검사에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12~60점이었으나, 실제로는 27~56점이었으며 전체의 49%가 39~44점사이를 차지하여 학생들의 행동방향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知覺向性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40~200점이나 실제로는 80~189점이었으며 전체의 63%가 130~139점 사이로 학생들의 지각향성도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교복착용태도 I 및 II와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相關關係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의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은 교복착용태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않을 것이라는 <가설 1>은 긍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가 승인한 의복을 선택하였다는 Laubach<sup>12)</sup>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며, 이는 우리나라 교복만이 갖는 다음과 같은 특유성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의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는 학생들이 교복을 통하여 소속학교의 특징 및 그 학교에 대한 긍지를 나타낼 수 없게 하였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교복에 대하여 비슷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Hurlock<sup>13)</sup>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학교 갈 때 교복착용을 싫어하나 교복이 높히 評價받는 학교와 동일시될 때에는 교복착용을 좋아한다는 진술로서 설명될 수 있다. 둘째로, 교복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공적으로 착용하는 유일한 의복이므로, 교복을 다른 종류의 의복과 비교 평가할 기회가 적을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교복착용의 전통은 교복착용자체를 생활화시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 2. 一般的의 衣服行動과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과의 관계

일반적 의복행동을 나타내는, 정숙성, 동조성 및 유행의 각 측면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7~35점이나 실제로는 정숙성 9~35점, 동조성 7~29점, 유행 7~32점이었으며 그중 정숙성의 평균점수가 좀 더 높았다.

일반적 의복행동과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과의 관계는 표 3과 같이 오직 의복의 동조성에서만 통계적으로

표 1. 교복착용 태도검사 II의 문항별 반응분포

(n=484)

항 목	응답범위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교복착용은 :						
행동이 조심스럽게 된다.	2%	9%	15%	51%	23%	
생활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4	9	20	45	22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3	10	24	43	20	
경제적이다.	5	10	21	47	17	
옷에 신경을 덜쓰게 된다.	9	23	15	36	17	
학생들의 통제를 위해서 좋다.	9	19	25	34	13	
학생이라는 신분이 너무 드러난다(R).	9	16	29	30	16	
모양과 색이 아름답지 못하다(R).	8	18	27	28	19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R).	5	17	20	34	24	
활동이 불편하다(R).	4	11	16	38	31	

a: (R)로 표시된 문항들은 반대방향으로 채점된 것임.

표 2. 교복착용 태도검사 I 및 교복착용 태도검사 II와 행동검사 및 지각향성검사의 상관관계

			(n=484)	
행동·지각변인			행동방향	지각향성
			r	r
교복변인				
교복착용태도 I			.02	.00
교복착용태도 II			-.01	.00

표 3. 일반적 의복행동검사와 행동검사 및 지각향성검사와의 상관관계 (n=484)

행동·지각변인			행동방향	지각향성
			r	r
의복변인				
정	숙	성	.04	.00
동	조	성	-.19**	-.09*
유		행	.04	.03

\*p<.05 \*\*p<.01

로 의미있는 否의相關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은 일반적인 의복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않을 것이라는 <가설 2>는 部分的으로 否定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아지각이 낮은 소녀들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복에 동조하였다는 Parrish<sup>10)</sup>의 연구결과 및 자신의 평가가 긍정적인 여대생이 의복에서 개성을 더 중요시하였다는 임춘봉<sup>10)</sup>의 연구결과등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이 긍정적인 학생들, 즉 자신을 유능하고 인간을 가치있게 보며 집단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구태여 사회적 승인을 위하여 의복의 동조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생각된다.

3. 校服에 대한 態度 및 一般的 衣服行動에 대한 學校別 差異

첫째로, 교복착용태도검사 I 및 II에 대한 중·고등학교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51%가 교복착용에 贊成하고 있어 이는 선

표 4. 외출시 교복착용도에 대한 학교별 차이검증

교복착용도	학 교	
	中 n=257	高 n=227
항상 착용한다.	15%	9%
주로 착용한다.	26	26
반반이다.	13	17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	30	43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16	5

$X^2 = 26.64^{**}$   $df = 4$   $c.c. = .22$   $**p < .01$

표 5. 교복의 자율화 허용범위에 대한 학교별 차이검증

자율화 허용범위	학 교	
	中 n=257	高 n=227
옷의 종류를 정해주고 색도 몇가지로 제한한다.	55%	34%
학생 마음대로 무엇이든 입게한다	20	32
색은 관계없이 옷의 종류만 정해준다.	21	26
옷의 종류는 관계없이 색만 정해준다.	4	8

$X^2 = 22.94^{**}$   $df = 3$   $c.c. = .21$   $**p < .01$

행연구결과<sup>17,18)</sup>에서 나타난 교복착용 찬성도(1973년 : 95%, 1978년 : 70%)보다 학생들의 교복착용 찬성도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둘째로, 표 4와 같이 교복착용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낮았으며 이는 고등학교 시절의 異性에 대한 더 높은 관심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복을 더 원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교복에 대하여 否定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학생들은 교복착용이 국민학생과는 차원이 다른 중학생으로서의 긍지를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연령에서는 동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外出時에 교복착용을 안하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으므로 외출시의 사복차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일반적 의복행동검사 평균치의 학교별 차이검증 (n=484)

종속변인	학 교		高		t-test
	中	高	M	S.D.	
정 숙 성	26.39	4.40	25.47	4.37	2.31*
동 조 성	17.44	3.68	17.04	3.58	1.18
유 행	17.92	4.45	19.23	4.04	3.39**

\*p<.05 \*\*p<.01

표 7. 교복변인과 일반적 의복행동변인과의 상관관계

(n=484)

일반적 의복행동	교복 변인	착용도 r	착용태도 I r	착용태도 II r	자율화 r
정숙성	성	.20**	.17**	.24**	-.19**
동조성	성	.06	.11**	.17**	-.14**
유행	성	-.21**	-.21**	-.30**	.23**

\*\*p<.01

의출시에 교복을 착용하는 이유로는 전반적으로는 학생답게 보이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교복이 학생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출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活動의 不便함(75%)이다. 이것은 청년기가 특히 신체적 발달 및 변화가 급속한 시기이나 현재는 교복을 한번 구입하더라도 1년이상은 동일한 것을 착용하는데서 오는 교복의 치수문제 및 현재의 교복형태가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교복은 예의바르며 학생다운 행동을 하는 것에,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활동면에서 불편을 안주고 심미성과 성장이 고려된 교복형태 및 소재가 채택됨이 요구된다고 본다.

셋째로, 校服의 自律化 허용범위에 대한 태도는 표 5와 같이 고등학생이 교복에서의 제한이 좀더 적은 것을 원하였으며 이것은 Laubach<sup>12)</sup>의 높은 학년일수록 의복 및 규율의 결정을 학생스스로 책임지려 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본다.

넷째로, 일반적으로 의복행동에 대한 학교별 차이는 표 6과 같이 貞淑性 및 流行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며, 정숙성에 대한 관심은 중학생이 더 높았으나 유행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생들이 더 높았다. 즉 중학생은 교복으로써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며 좀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등학생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연령에서 유행에 관심이 많아진다<sup>13)</sup>는 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학교집단의 차이는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不定되었다.

#### 4. 의복변인간의 상호관계

校服變因과 일반적 의복행동 변인과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이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교복의 자율화를 좀더 원하는 반면, 정숙성 및 동조성이 높은 학생은 교복의 자율화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동

조성이 높은 학생이 교복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교복착용에 찬성하였으나 그들의 실제 교복착용도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경제적 여건이나 집 또는 학교의 분위기등이 교복착용도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써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의복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4>는 부정되었다.

교복변인간의 相互關係는 교복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이 외출시 교복착용도가 높았고 교복의 자율화 허용범위를 넓히지 않을 것을 원하였다. 일반적 의복행동에 있어서는 유행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정숙성에는 관심이 낮고 동조성에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는 특히 유행이 하나의 동조현상이며 이들에게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다양하고 극단적인 의복을 입는 것이므로 정숙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其他變因間の 상호관계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태도는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어, 경제수준이 높고, 가정의 분위기가 민주적이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좀더 교복의 자율화를 원하였고 그들의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도 보다 긍정적이었다. 또한 학교의 분위기가 민주적일수록 학생들의 행동방향 및 지각향성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정규 수업이외의 활동에서는 자유로운 의복착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들에게 관련된 여러 상황적 요인들의 제한범위 축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의복이 청년기의 바람직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다 자유로운 상황을 허용하는데는 학생들의 올바른 의복착용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81年 9月 18日 接受>)

#### 참 고 문 헌

- 1) 동아일보, 4면(1980. 4. 24)
- 2)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

- 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241-245(1966).
- 3)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td., 173-205(1978).
  - 4)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46, 175, 112 (1975).
  - 5) Hurlock, E.B.,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Tokyo: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McGraw-Hill Kogakusha, Ltd., 168-169(1973).
  - 6) Latzke, A. and Hoste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55-56(1968).
  - 7) Roach, M.E., Adolescent Dress, *J. of Home Economics*, 61, 693-697(1969)
  - 8) Anspach, K.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23-43(1967).
  - 9)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Arno Press Inc., 17 (1929).
  - 10) 임춘봉,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4).
  - 11) Langner, L., Clothes and Government, in Roach M.E. and Eicher, J.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24-127(1965).
  - 12) Laubach, A.R., School-Controlled Conformity of Dress for Teenagers and Its Relation to Selected Behaviors and Security-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2).
  - 13) 최정훈, 지각향성검사 표준화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9, 연세대학교 대학원, 87-100(1972).
  - 14)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15)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 1-11(1979).
  - 16) Parrish, P.C., Self-Perception Relative to Selected Clothing Attitudes and Practices and Clothing Usag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44(1975).
  - 17) 최홍자, 교복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4).
  - 18) 김경선 외 6명, 우리나라 여고생의 의복실태조사, 부학 12.13,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11-14(1980).